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아동 지원 발대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23일 2022 전북 지역 인재양성지원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7~18세 아동, 청소년 중 학업예수,체육 등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인재양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도내 총 43명의 아동들이 선정되어 예술(11명), 학업(4명), 체육(27명), 자율(1명)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고 있다.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는 올 한해 43명의 아동에게 총 2억 8천만원 가량의 인재양성 후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북도청 신미애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 도내 아동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전북 도에서도 초록우산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 오늘 참석한 모든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어린이재단 구미희 본부장은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인재양성 아동으로 선발된 아동들은 1년 동안 재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올 10월에 2023년 신규 인재양성 아동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다문화가족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임명

남원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다문화 강사 12명을 양성해,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가정에 파견한다. 다문화강사는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적응 능력이 뛰어난 나라별로 6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몽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로 다문화 부모교육 강사양성 교육을 통해 지난 4월 임명되었으며,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6개의 모국어로 직접 번역하여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 교육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약선음식 여름철 보양식 실습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명품농업대학 약선음식반 28명을 대상으로 여름 제철농산물과 해산물을 이용한 여름철 보양식 만들기 실습을 진행했다. 여름보양식 강좌는 고은정 약선식생활연구센터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무더위 건강을 지켜줄 여름약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명계비빔국, 실파전장국, 치자반 등을 만들어 보았다. 이번 교육생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선재료를 활용한 실습으로 전통음식과 제철음식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대강면, 마을복지계획수립 워크숍 개최

남원시 대강면은 지난 16일과 23일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따뜻한소통 협동조합 김정미 대표와 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 및 관심있는 주민들이 마을 복지계획수립단으로 참여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노일환 대강면장은 "지역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이 주체성을 갖고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책 또한 스스로 찾아가는 진정한 마을복지계획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6.25전쟁영웅 故 김한준 대위

전북동부보호지청,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배우자 자택에 명패 부착

전북동부보호지청(지청장 최정길)은 지난 22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전주시에 거주하는 6.25전쟁영웅 故 김한준 대위 배우자 양옥자(90세)님의 자택에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유족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리고 의미를 전했다. 양옥자님은 6.25전쟁영웅 故 김한준 대위의 배우자로, 故 김한준 대위는 휴전현상이 막바지에 달했던 1953년 7월, 중공군의 7·13공세에 맞서 425고지를 사수하는 임무를 받고 중대장으로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 중공군 1개 대대를 섬멸하는 큰 전과를 올리며 6.25전쟁 마지막 승전고를 울렸다. 1953년 10월 13일 무공훈장 중 가장 높은 훈격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12년 4월 별세 이후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2019년 2월 국가보훈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정길 지청장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직접 자리해주시는 김승수 시장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서 있다. 故 김한준 대위의 위국헌신을 널리 알리고 보훈가족의 예우를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 유럽 투어 일정 나서

한국 테니스 유망주인 조세혁(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유럽 투어 일정에 나선다. 23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아시아 14세 이하 남자 랭킹 1위이자 한국 U-14세 국가대표인 조세혁이 유럽 투어를 위해 오는 30일 출국한다. 조세혁은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운영하는 14세부 유럽 투어팀에 선발 강학생으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현재 조세혁은 전북체육회의 월드스타 육상 사업에 선정, 밀착 지원 받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지에서 훈련과 대회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조세혁은 이번 투어를 통해 한층 더 경기력이 향상 될 전망이다. 특히, 월드컵 테니스(주니어)대회에도 출전한다. 이 대회에서 조세혁은 대륙별에서 초청 된 16명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월드컵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코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정강선 회장은 "조세혁 선수에게 이번 일정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잊지 못할 큰 추억이 될 것이다"며 "승패를 떠나 좋은 경험을 쌓고 부상 없이 귀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신중년 재취업 교육 추진

남원시는 23일 시청강당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88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와 노사발전재단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가 주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교육은 100세 시대의 삶과 변화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직전략과 구직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복한 인생 3교과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신중년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노사발전재단은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취업알선,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안순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재취업 교육을 통해 본인의 경



험과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발전의 소중한 동력으로 다시 자리매김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신중년들이 가진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도록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수질환경 보전회 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23일 남원시 주변면 정안저수지일원에서 농업용수 수질관리 거버넌스인 '수질환경 보전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충호 지사장과 내부위원 및 남원시청, 환경단체, 언론인, 농업인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농업용수 수질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 남원지사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업용수 수질관리 추진계획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상호간 수질관련 의견교환을 통해 수질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장안저수지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다. 한편 이충호 지사장은 "수질관리의 오염원인 및 이상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양질의 수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화산1동·예수대, 어르신 정서지원 멘토링 진행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동장 유은례)과 예수대학교(총장 김찬기)는 23일 오전 지역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협약을 통해 예수대학생, 교수, 주민센터 직원이 참여해 홀몸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활동 멘토링 정서지원 등 신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500 어르신 맥을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모기 기피제를 전달하고 함께 부채를 만들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유은례는 "손주 같은 학생들이 전화로 안부도 묻고, 집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해주시니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기분이 좋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신보, 사랑의 밥차로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전북신보보존재단(이사장 유용우, 이하 '전북신보')은 지난 14일과 23일 전주지역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가정,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전북신보는 전주연락은행(대표 윤국춘)이 진행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무료배식'을 위해 총 300만 원을 후원하는 것은 물론, 유용우 이사장을 비롯한 32명의 임직원들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에 참여해 400개의 도시락을 만들었다. 전북신보 유용우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한 한 끼를 대접하고자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재단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신보는 이밖에도 에너지 취약가정을 위한 연탄 후원과 봉사활동과 1,100포기 김장 및 220가구 김장전달, 수해복구 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 및 후원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6.25·월남 참전용사 찾아 봉사활동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23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전북은행 안전관리부 직원들은 전북동부보호지청의 추천을 받은 참전용사들의 주거를 방문해 마루장판과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선풍기, 쌀, 생수, 화장지 등 생필품도 직접 구매해 전달했다. 참전 당시 소속 부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참전용사 박삼복(91), 이춘호(78) 할아버지는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불편한 살림살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전북은행 직원들이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전북은행 방곡봉 부행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살피고 드리자는 취지로 이번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박성숙)가 정부로부터 여성성의 취·창업과 고용인정에 앞장서온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전주새일센터)는 23일 서울 '스페이스살롱'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제11회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지난해 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새일센터는 △취·창업 지원 부분 △서비스 제공 부분 △센터 운영 부분 등 전반적인 평가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새일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구인·구직 취업연계,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왔다. 또, 개소 이후 106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구인·구직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누적 취업자수 2만380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